

기고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구글 기프트카드 피싱, 나도 모르게 당할수 있다

온갖 상품권이 우후죽순 발행되는 요즘 중장년층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구글 기프트 카드!

사용하는 방식인데 카드 뒷부분의 영어와 숫자가 혼용된 16자리 일련번호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용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이용한 많은 신종 사기범죄 피해 부작용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매하는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 일련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수법의 피싱이다.

만 입력하면 온라인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돈을 송금받는 계좌방식이 아니라 구글 본사가 미국에 있다보니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이를 교묘히 활용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다. 기존 메시지 피싱 수법이 가족을 사칭해 현금 송금을 요구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처럼 상품권 일련번호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and a disclaimer.

행복(幸福)을 주는 사람

살다보면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남의 행복은 등한시 하면서 생활하고 나 살기도 팍팍하고 힘겨운데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삶이며, 행복하고 싶으면 채우기만 하지 말고 비우고 남에게 채워주어야 합니다.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나 행복감을 느낀다. 물론 그런 반면에는 늘 실망감을 주는 사람도 있으며 보기만 해도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 차라리 연락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다.

이 먼저 앞설 것이다.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내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모두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만나지만 진정으로 그분들에게 조그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본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